2015년 중·일 경제관계 전망

* 이 자료는 슈엔(朱炎)일본 타쿠쇼쿠(拓殖)대학 교수가 일본경제신문 경제교실: 일중관계 전망, 상호의존 분업 발전 지속('14.11.27)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○ 중·일은 무역에서 분업구조가 확립되어 양국간 경제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있음

○ 중국은 성장둔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

○ 일본은 FTA 중심의 경제연대와 위안화의 국제화 등에 대응해야 함

□ 중·일 정부간 대화 재개에 따른 경제관계 개선

○ 중·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관계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끼쳤음

- 경제관계는 양국간 상호의존적인 분업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치적 관계의 긴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발전해왔음

○ 2014. 11월 APEC정상회의에서 중·일정상회담이 2년 만에 이루어져, 그동안 중단된 정부간 대화도 재개하기로 결정

- 이는 중·일 관계 개선의 출발에 지나지 않으나 경제관계에도 플러스 영향을 미칠 것이며, 상호 보완관계가 강해지면 일본경제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

□ 비대칭적인 중·일간 무역의존도 추이

○ 중국은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으로서 수출입 총액의 20%를 차지

- 중국의 수출은 2013년 이후 대미국 수출이 가장 많으나, 홍콩 경유도 포함하면 일본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임

-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중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저하되고 있음

- 일본의 대중의존도는 중국의 대일의존도를 상회하고 있음

○ 중·일 무역은 일반기계, 전기기기, 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 차지

- PC와 부품, 휴대전화, 전자부품,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상호 부품과 제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주류는 수평분업에 기초한 산업내무역임

- 중국 진출, 일본계 기업들의 활약으로 양국의 생산 공정간 분업관계가 구축되고 있으며, 그러한 의미에서 산업내무역은 기업내무역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음

○ 중국기업과 일본기업은 상호 서플라이체인으로 구축되어 있음

- 중국에서 생산되어 세계시장에 출하되는 스마트폰에는 일본제 부품이 대량 사용되고 있음

- 일본의 자동차업체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에는 일본기업과 동남아 일본계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, 중국에 있는 일본계 자동차부품업체들도 일본에 수출하고 있음

○ 그동안 중·일경제의 근간인 상호의존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관계가 대립과 긴장되더라도 무역에서의 마이너스영향은 일시적으로 그침

- 중국에서는 일본 브랜드의 현지 생산차 판매가 2012년 9월 이후 양국관계의 악화 영향으로 침체되었으나 2013년 여름 이후 회복되고 있음

□ 조정·선별 경향을 띠고 있는 對 중국 직접투자

○ 일본의 對 중국직접투자는(JETRO 통계) 잔고기준으로 2013년 말 981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8.8%를 차지

- 2012년에 대폭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는 감소경향, 이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정치적 관계의 악화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, 기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것임

○ 일본의 제조업은 중국을 저비용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었으나, 중국의 성장과 시장 확대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전략적 시장으로 설정, 현지 생산판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투자를 늘려왔음

- 그러나 근년 중국경제의 성장감속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對 중국투자도 조정·선별되고 있음

□ 중·일 상호의존 관계는 지속

○ 중·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제적 의존관계의 붕괴 우려는 당분간 없을 것임

- 노동집약형·수출용사업 분야는 이전 또는 철수 현상이 보이는 반면, 내수용 사업은 계속 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
- 또한 비제조업의 대 중국투자도 확대되고 있음

○ 한 때 대폭 감소했던 중국인의 대일관광객도 2014년 이후 회복, 2014년 1~10월 기간 중 과거 최고를 갱신

-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면 중·일 경제관계는 단순한 회복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음

□ 안정·성장 국면에 접어든 중국경제

○ 중국경제는 과거 30년, 고도성장이 계속되었으나 2012년 이후 성장률이 7%대로 저하되고 있음

- 저출산·고령화와 노동력의 공급부족, 임금상승 등 고성장을 지탱해주었던 국내 요인들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, 금융위기의 영향에 의한 해외시장의 침체요인도 있어 안정·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

○ 생산능력의 과잉, 소비수요의 부족, 환경의 악화, 무역마찰의 격화 등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

○ 수출과 투자가 주도하는 과거의 성장패턴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내수, 특히 소비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, 경제성장을 억제해서라도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

○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도 경제성장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

-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APEC블루라 불리는 북경의 파란하늘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고 했으나,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호한 환경보호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, 성장감속이 불가피해질 것임

○ 중국정부는 7%대 성장을 새로운 정상적인 상태로 인식, 고용이 확보되는 한 과거와 같은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보류하려 하고 있음

- 지방정부의 과잉채무와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, 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, 금융정책도 긴축기미를 보여 왔음
- 이 때문에 소비와 투자 수요가 억제되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

○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11월 22일 2년 4개월 만에 금리인하를 단행

- 이는 공공투자 등 거시재정정책의 확대를 피하고, 금융완화를 통하여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줌으로써 경제안정을 유지하려는 조치임

○ 중국의 7%대 성장이 정상적인 괘도가 됨에 따라 일본경제에 대한 플러스 효과가 줄어들 우려도 있음

- 작년 이후 일본의 대중투자 감속도 중국의 시장 확대 속도가 둔화되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연기한 것도 원인의 하나임

○ 7%대의 성장이라 하더라도 중국경제의 성장이 계속된다면, 중국의 국내시장 확대는 멈추지 않아, 일본기업의 사업기회도 많을 것임

○ 특히 일본은 도시화, 환경·에너지 절약대책 분야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만큼, 중국이 산업구조 전환과 고도화에 관련된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기술에 대한 기대도 큼

□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조정

○ 경제력이 증강됨에 따라 중국은 대외경제관계의 조정에도 주력하고 있음

- 이것은 당연히 일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, 일본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이를 잘 이용할 수도 있음

○ 중국은 한중일 FTA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, 일본은 TPP를 우선시하여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음

- 그러나 2014. 11월 APEC회의 기간 중 한중FTA가 타결됨으로써 한국기업은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됨

□ 일본은 한중일 FTA교섭을 가속시켜야

○ 일본은 이 같은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도 한중일FTA교섭을 가속시켜야 함

- 한중일 FTA가 구축될 경우 일본의 대중수출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일본기업들의 경영환경도 크게 개선됨

□ 위안화의 국제화, 중·일간 무역·투자를 촉진

○ 중국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어, 위안화 표시 무역결제와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

-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도 미국 달러를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되어, 중·일간 무역과 투자의 편리성이 높아짐
- 또한 위안화 국제화의 일환으로서, 중국은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, 중·일 상호 증권투자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
□ 중국의 경제협력 구상에 동참하는 것도 일본의 경제적 이익증대에 플러스

○ 중국은 최근 아시아, 특히 주변국을 포함한 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음

- 그 중에서도 영향이 큰 것은 아시아개발은행(ADB)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,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은행(AIIB)을 창설, 이미 22개국이 참가의사를 표명

○ 일본 국내에서는 AIIB에 대한 경계와 반대가 강함

- 일본의 참가여부는 정치적 판단에 맡기나, AIIB가 기능하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
- 이는 일본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인프라 수출전략 추진과 일본기업의 수주 촉진으로도 이어질 것임. KJCF